



방송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이상희 방송위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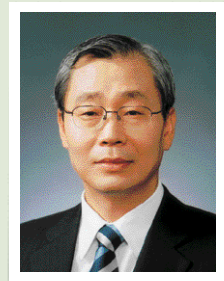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희 방송위원을 제3기 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상희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한국신문학회 회장, 서울대 신문연구소 소장, 서울대 명예교수, KBS 비상임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는 김구동 KBS 연수원 교수를 제3기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김구동 사무총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KBS 관재국장, 인력관리실장을 거쳐 최근까지 KBS 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하나로텔레콤, 김태현 전 정통부 차관 영입

하나로텔레콤이 김태현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회장으로 영입했다.

김태현 회장은 행정고시 13회 출신으로 재무부 증권정책과장, 재정경제원 예산실 사회교육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지난 2002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정보통신연구원진흥원 원장을 맡으며 IT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김태현 회장은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멀티미디어 회사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EMC 박재희 이사, 아·태지역 마케팅 총괄

박재희 한국EMC 이사가 본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 총괄 이사로 전격 승진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박 이사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호주 및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등 EMC 아·태지역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영업 기회 발굴을 위한 기업 마케팅을 총괄하게 된다. 지난 1997년부터 한국EMC 마케팅 본부에서 대고객 마케팅을 담당해온 박 이사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5년 만에 이사로 초고속 승진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박 이사는 파트너 사업부로 발령, 마케팅 분야에서 쌓아온 폭넓은 시장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파트너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파트너 사업부 최고 관리자로 활동해 왔다. 박 이사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건설, 레이캠, 퀀텀코리아, 델컴퓨터 등을 거쳐 지난 1997년 한국EMC에 합류했다.

머큐리 영업 담당 이사에 정점근씨 영입

머큐리인터랙티브코리아가 영업 강화를 위해 전 오라클 영업 팀장인 정점근씨를 새롭게 영입했다.

신임 정점근 영업 이사는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부터 13년간 HP에서 근무했으며, 2003년부터 최근까지 오라클에서 영업 팀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대기업 및 공공분야 고객을 대상으로 ERP 영업을 담당했다. 정 이사는 HP 재직 때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주로 담당한 베테랑으로 산업분야별 영업 노하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머큐리코리아는 정 이사의 영입을 통해 영업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비즈니스기술 최적화(BTO)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한국오라클 테크놀로지 사업 총괄에 신동수 전무 승진 임명

한국오라클은 지난달 5일 테크놀로지 사업 본부장이던 신동수 전무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신동수 부사장은 지난 93년 한국오라클에 입사한 이래 영업 부문 이사와 상무, 전무를 거친 영업 전문가다.

한국오라클에 입사하기 전, 신 부사장은 91년부터 93년까지 Fault Tolerant Server 업체인 세쿼이아시스템스코리아(Sequoia Systems Korea)의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현대전자와 현대중공업 등에서 IT분야를 담당했다.

신 부사장은 앞으로 "한국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와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최근 핵심 이슈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계정관리 등의 신규 시장에서도 선두에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